

청렴, 실천이 경쟁력이다



- I. 청렴기본소양
- II. 청렴민감성
- III. 도덕적 판단력
- IV. 청렴수행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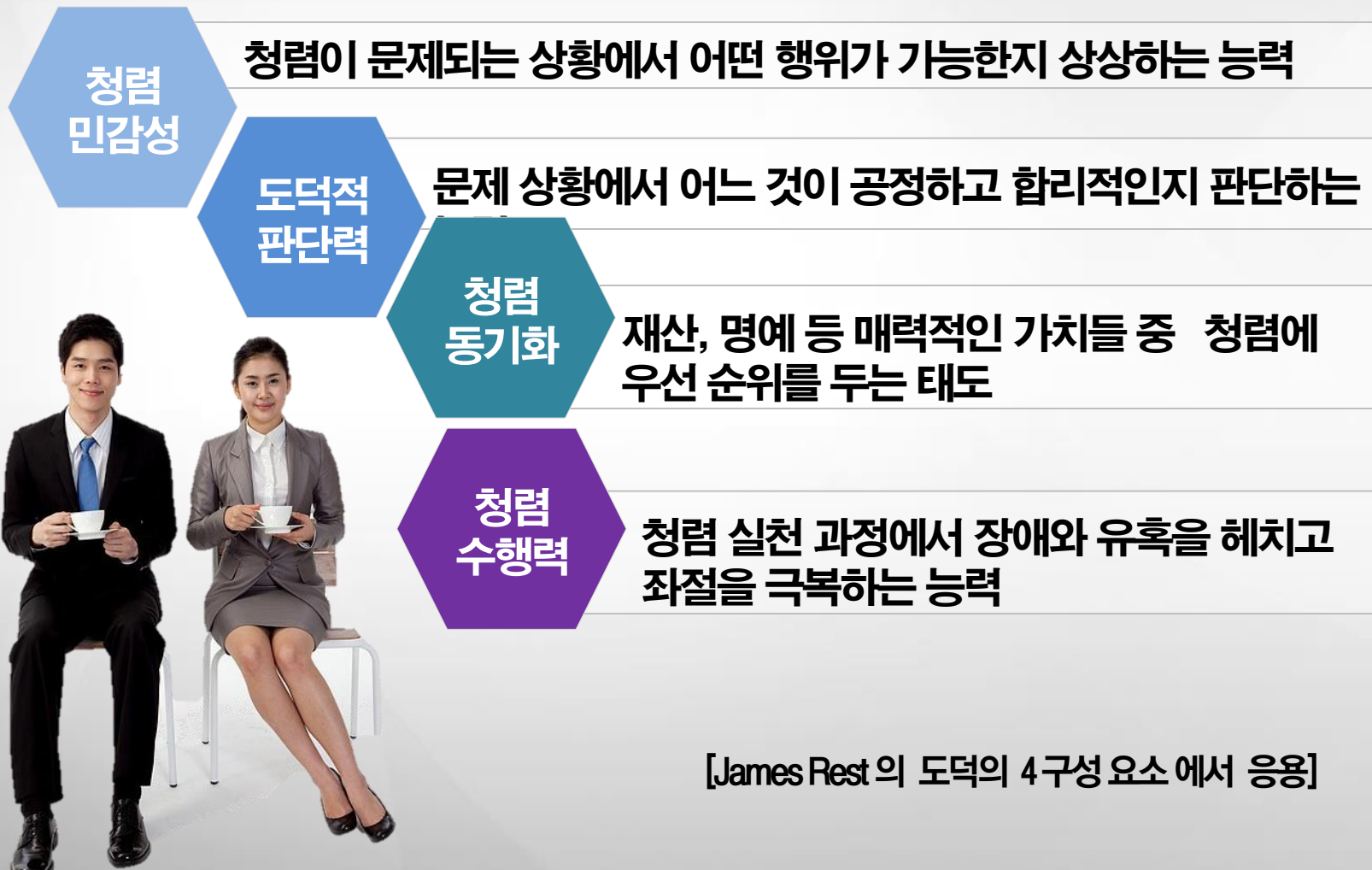
Basic Knowledge

청 렬 기 본 소 양



- I. 청 렬 4 요소
- II. 우리의 모습
- III. 국가 발전 단계별 부패 유형
- IV. 반 부패 청 렬 정책

청렴의 4구성 요소



[James Rest 의 도덕의 4구성 요소 에서 응용]

우리의 모습

2011년 징계 공무원

2,653 명

공금유용 · 횡령

2.4배
증가



109건

46건

'06년

'11년

증 수뢰

5배
증가



368건

78건

'06년

'11년

직무 유기 · 태만

1.4배
증가



22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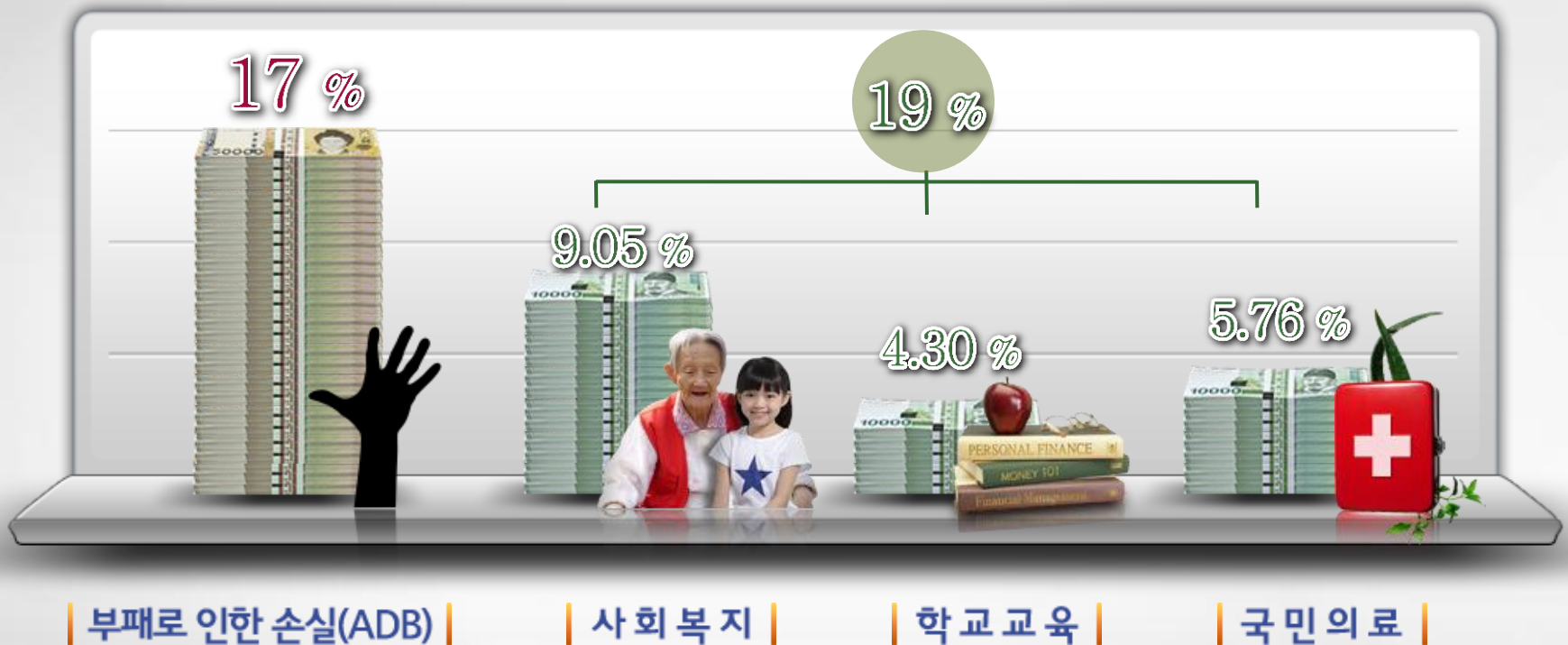
157건

'06년

'11년

우리의 모습

아시아개발은행 추산 부패로 인한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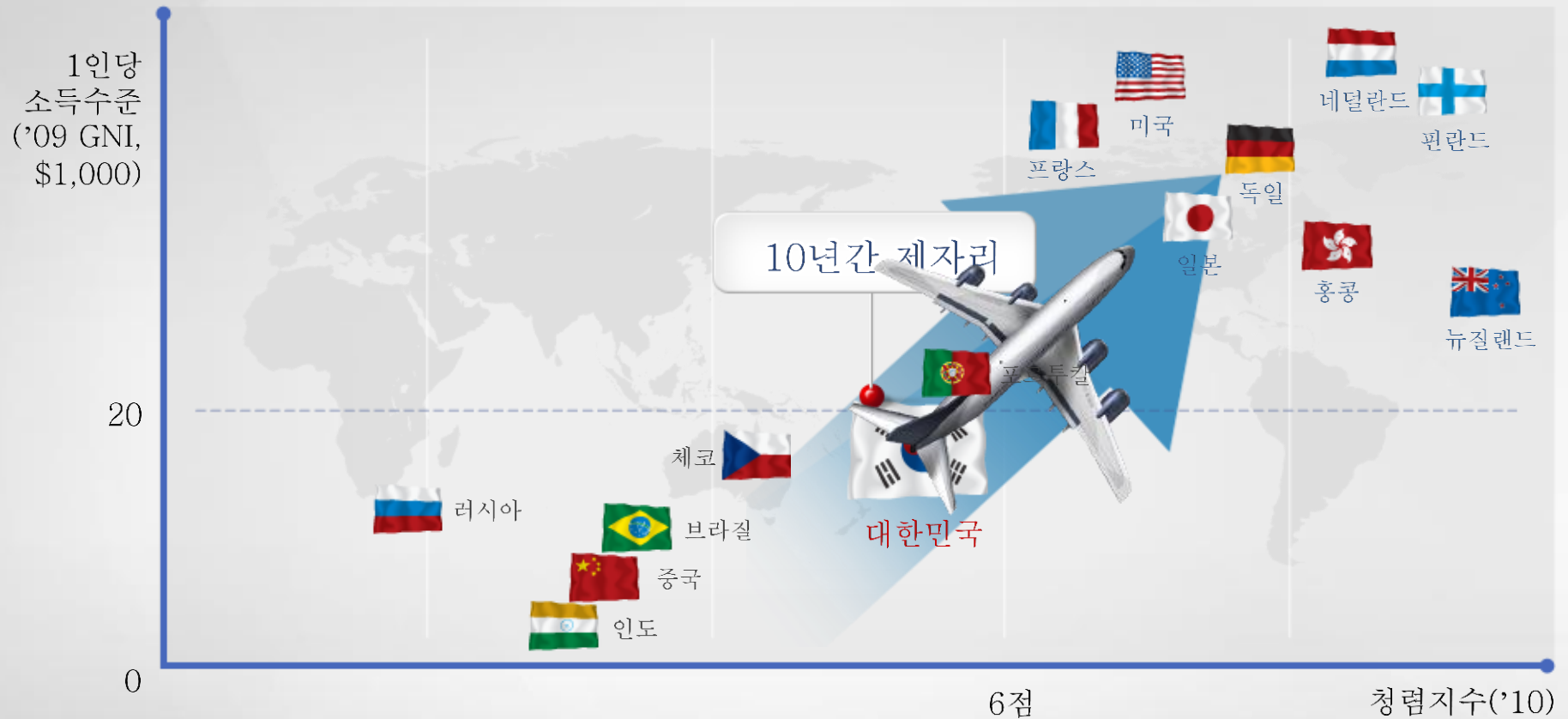


전체 GDP 중 사회복지, 학교교육, 국민의료 예산은 약 19%를 차지
반면 부패로 인한 손실은 약 17%에 달함



우리의 모습

국가청렴도와 국민소득의 상관관계



**국가 청렴도 1점 상승 시 1인당 교역 31%.
외국인투자 관심도 26%, 1인당 GNP 25% 상승**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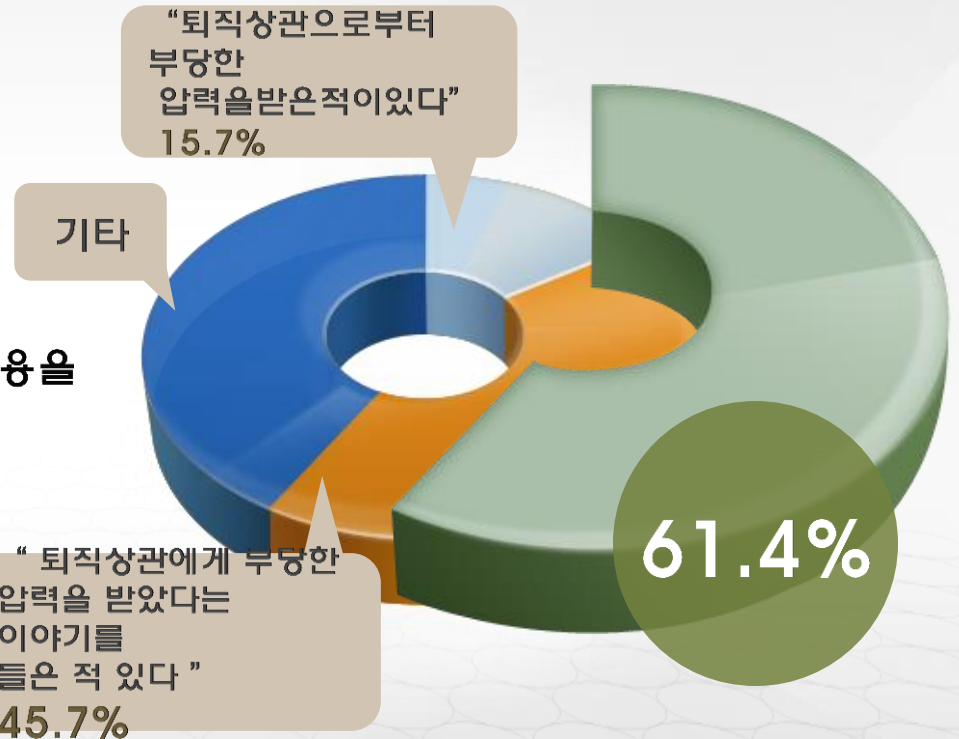
우리의 모습

고위공직자 빈발 부패유형

알선·청탁

알선, 청탁, 압력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리들 통해서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적 효과 파급

- 퇴직 후 국공립 대학교수나 중고교사 임용을 청탁한 전직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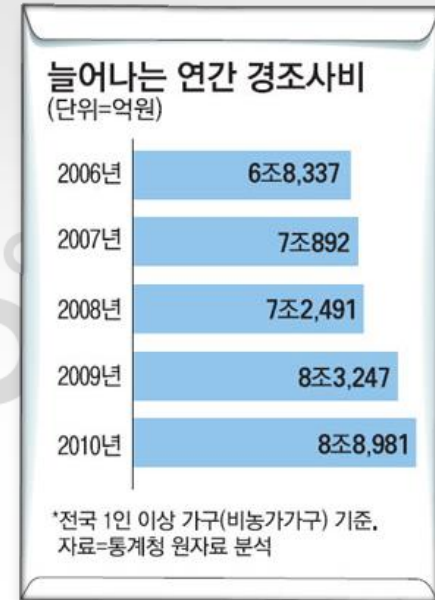


고위공무원단 조사 결과 (' 11.5월, 한국행정연구원)
공무원 61.4%가 퇴직 상관의 부당한 압력 직·간접 경험

우리의 모습

한국사회에서 경조사비는?

- 관계중심심리와 체면치레, 품위유지관행
- 경조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는 미래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
- 성의표시 혹은 로비수단으로 활용



"현직도 아는데 여기저기 챙겨야 할 경조사비로 허리가 휘 지경이다"

- ▶ 전직 경제부처 A장관 지난해 12월 경조사비 340만원 지출



"은퇴해서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이 정도지 현직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경조사비 액수가 배나 더 돈다. 경조사비가 부담돼 연락 끊어버린다는 다른 퇴직자들의 마음을 알 것 같다"

- ▶ 최근 은퇴한 고위공직자(1급) B씨 지난달 경조사비 100~150만원 지출

국가 발전 단계별 부패 유형

단계	1 단계 독재 형	2 단계 족벌체제 형	3 단계 엘리트유착 형	4 단계 로비시장 형
부패 방지 대상자	독재자 핵심측근	대통령 측근 거물정치인	정치인 엘리트그룹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로비스트
부패 통제 영역	법률적 부패	법률적 부패	법률적 부패 공직윤리	법률적 부패 공직윤리 이해충돌
부패 방지 기관	경찰, 검찰	부패방지기구 경찰, 검찰	공직윤리기관 (부패방지기구), 경찰, 검찰	공직윤리기관 (부패방지기구) 경찰, 검찰



우리의 모습

외신이 바라본 한국사회

“ 빠른 변화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와 부패 문제가 공정사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The Washing Post ('11.6.)



“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 ”



“ 부패문제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턱 밑에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

Financial Times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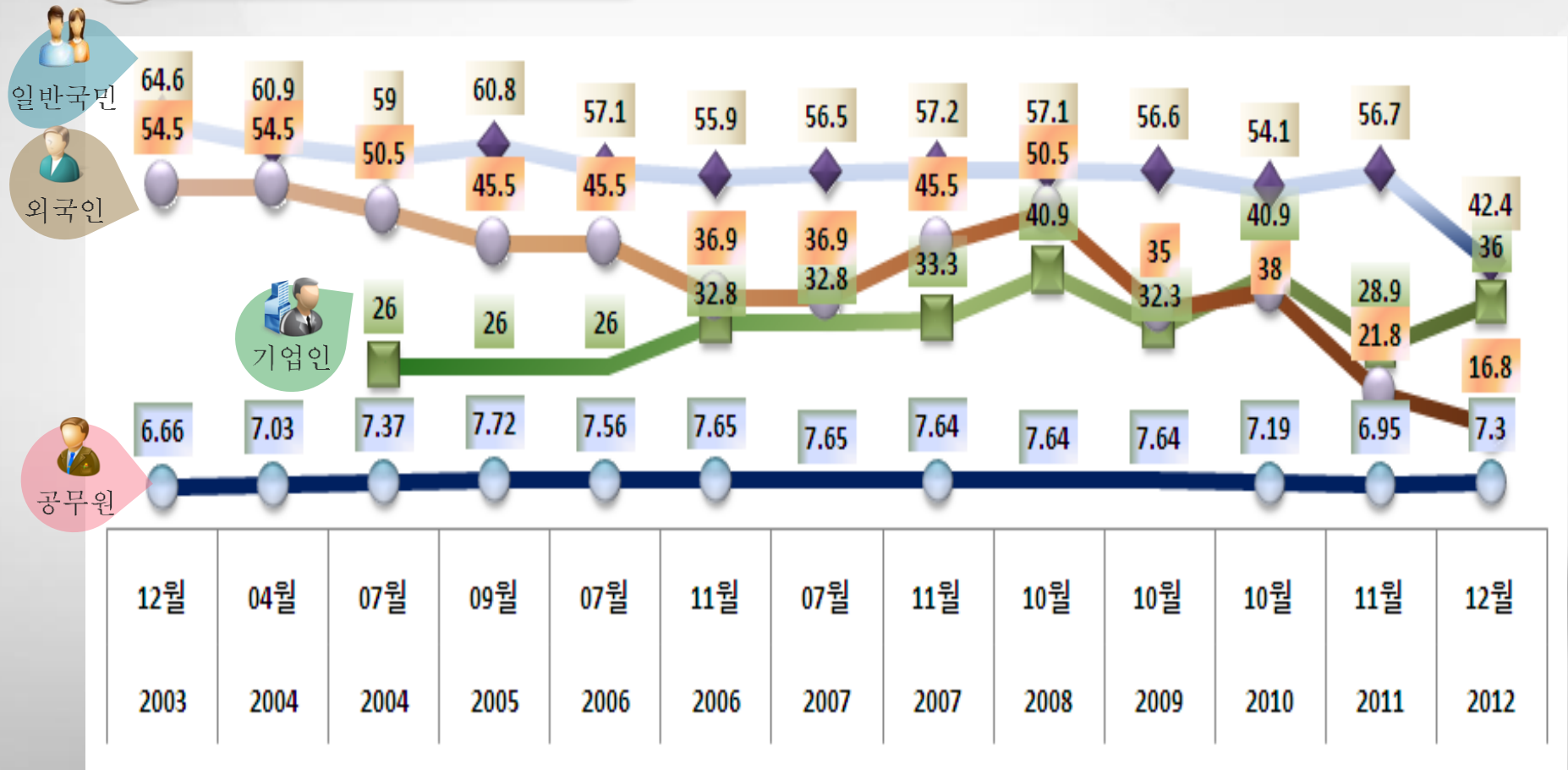


우리의 모습

국민과 공직자 사이의 커다란 인식차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연도별 부패 인식도 추이



반부패 청렴정책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무원의 의무’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 (친절 · 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반부패 청렴정책

권익위 반부패 청렴정책의 기본방향

사건예방 측면

청렴교육

청렴도 평가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 제도

사후통제 측면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반부패 청렴정책

공직생애주기(life-cycle)별 청렴교육 의무화

공직수행의 주요단계에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공직자 전 생애의 청렴을 생활화 하고
올바른 공직윤리의 실천을 유도

청렴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승진 및
해외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추진

고위 공직자

노블레스오블리주,
청렴리더십 확립

해외 파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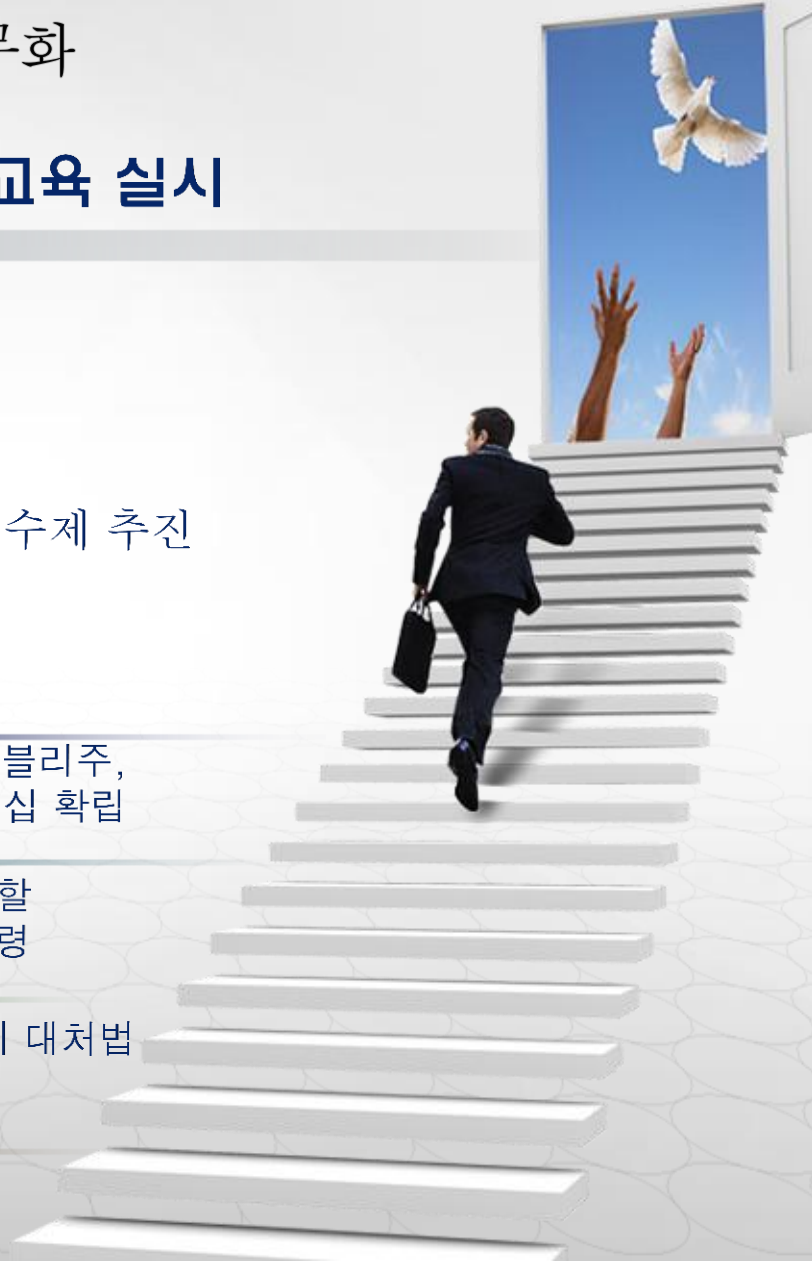
해외근무 시 지켜야 할
바람직한 근무자세와 행동강령

승진 예정자

기관유형별 부패사례, 윤리적 갈등사례 대처법

신규 임용자

바람직한 공직관 확립, 청렴초심 내면화



반부패 청렴정책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내용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불복종 가능
- ▶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보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 ▶ 공용물과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 이용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 ▶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금지
- ▶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이용 금지



반부패 청렴정책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내용

인사청탁 등 금지

- ▶ 자신 혹은 타인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 및 개입 금지
- ▶ 예외-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희망부서 등 인사고충 및 상담은 가능

알선·청탁 등 금지

-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 금지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제공 금지

-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편의제공 등 수수 금지
- ▶ 예외 - 통상적 관례 범위(3만원)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편의
 -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홍보용 물품



||

Sensitivity

청 렬 민 감 성



- I. 뇌물은 반드시 적발된다
- II. 부패의 말로
- III.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뇌물은 반드시 적발된다

전직 검사가 이야기하는 뇌물이 반드시 적발되는 이유



1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청탁자는 자기 과시를 위해 주변인에게 알린다

2 [주변에는 적이 많다.]
내가 잘 될 경우 없던 적도 생긴다.

3 [뇌물 사건의 증거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 가능

4 [뇌물을 준 사람이 의리를 지킨다?]
이해타산을 위한 뇌물에 의리와 도덕은 없다

뇌물은 반드시 적발된다

인간적으로 맺어진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령 공무원은 서로 절대 자백을 하지 않기로 하지만



1 [공여자는 조사 도중 다른 혐의가 잡힌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인은 없다

2 [수사관은 협상을 제의한다]
뇌물 공여를 시인하지 않으면 다른 혐의로 구속시키겠다

3 [기업가는 사업체를 살려야 한다]
구속되면 자금이 안 돌아 사업체가 망한다

4 [자신이 살기 위해 공여자는 자백한다]
공무원과의 의리는 이차적인 문제가 된다

뇌물은 반드시 적발된다

뇌물의 배신

25년간 성실히 일해 공기업 부장이 된 김 모씨의 이야기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회식비, 경조사비, 노래방비를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 관행적으로 실무직원이 하청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
 - 박과장에게 상납
- 박과장이 김 부장에게도 일부 상납
(1천만 원을 온라인으로 수수)

뇌물은 반드시 적발된다

뇌물의 배신

어느 날 실무직원이 리베이트를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혐의로 구속 되자
일단 박과장과 김부장은 도피합니다



- 하청업체에서 실무직원에게 1억 원 입금 통장 발각
- 실무직원은 박과장에게 상납하였다고 진술
(온라인 입금 증거 발각)
- 회사에서는 박과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기로 함
(1천만 원은 빌려준 돈?)

뇌물은 반드시 적발된다

뇌물의 배신

도피중이던 박과장은 실무직원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검찰에 자수하여 모든 책임을 김부장에 돌립니다

김부장도 결국 자식을 생각하여 자수하고 부하직원들의 진술을 모두
시인하고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복역하게 됩니다.

- 김부장 지시로 입을 맞춘 것이다

부패의 말로

중앙부처 김 모 서기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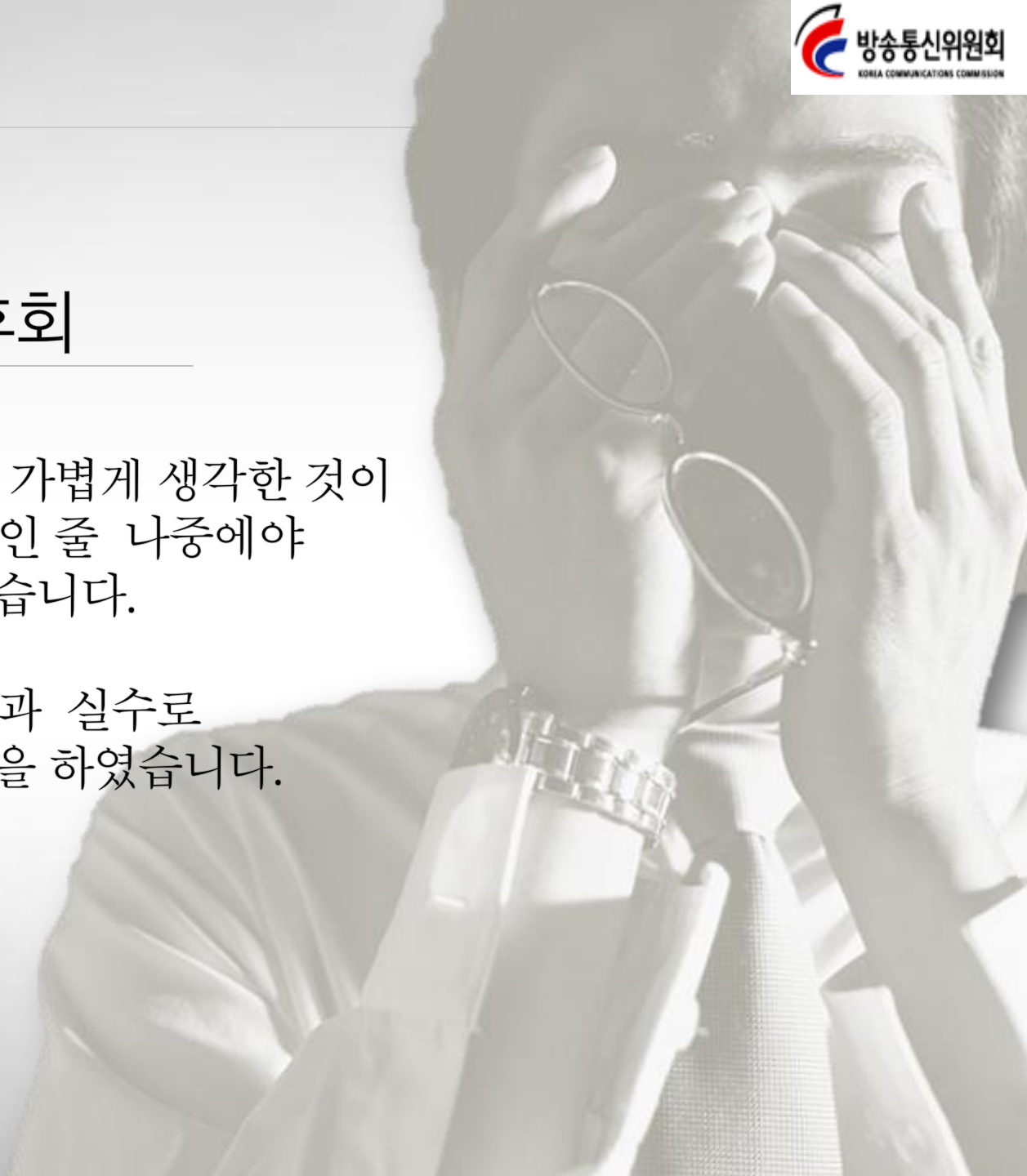
“한번의 실수, 평생의 후회”



김 서기관의 후회

남들도 다하는 것이라 가볍게 생각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방심과 실수로
평생을 후회할 일을 하였습니다.



국가 출연기관 최 모 원장의 마지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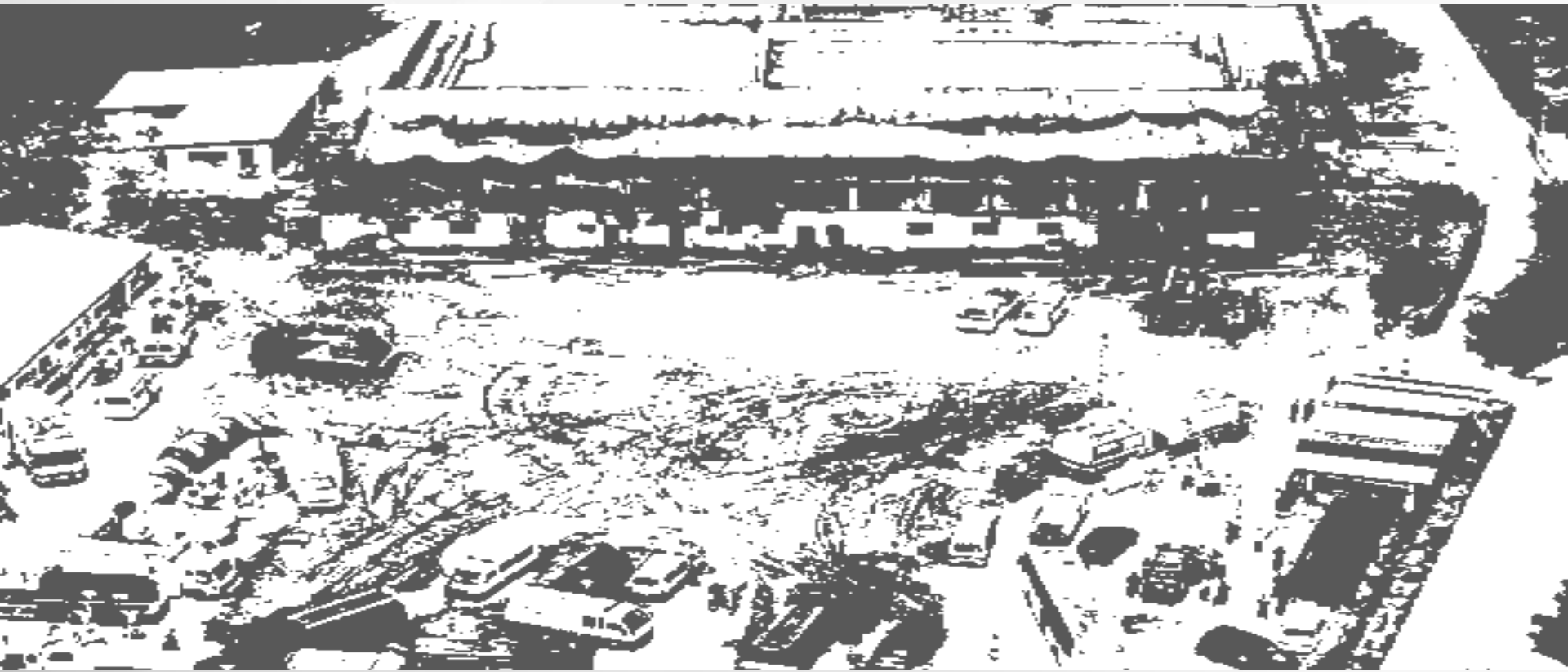
최원장의 독백

이 때 욕심을 내지 않으면 언제 낼 것인가?
내가 힘이 있을 때 이득을 챙겨 자리를
상실했을 때를 대비하고자 했다.

그래서 탐욕이 커지면서
작은 욕심에서 큰 욕심으로 발전했다.

뇌물 받는 횟수와 액수가 점점 커지면서
마음이 대담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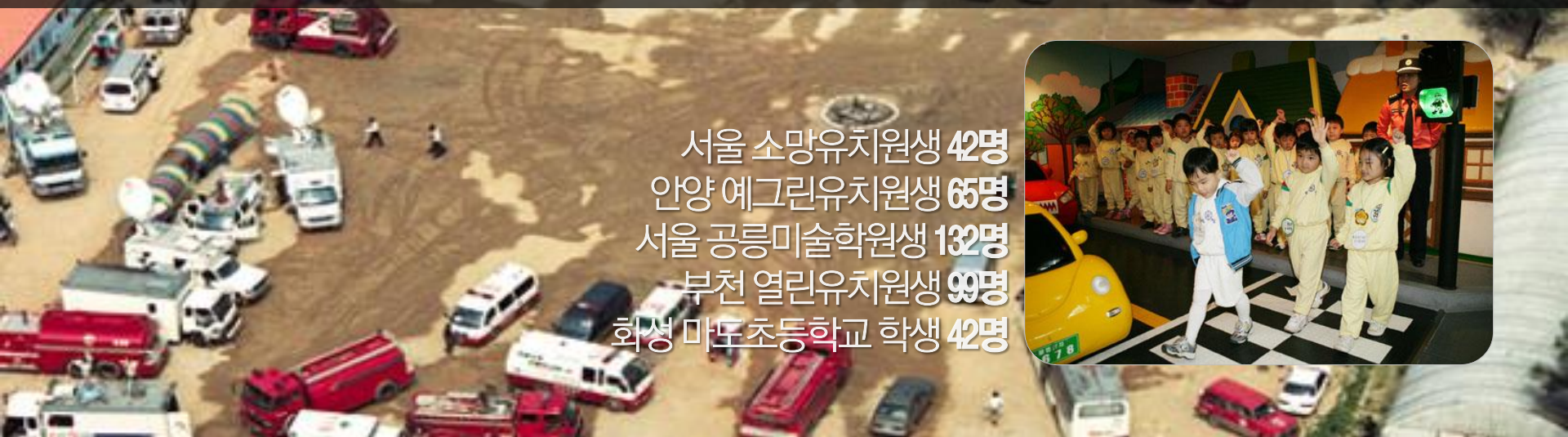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비운의 1999년 6월 30일 밤, 씨랜드 청소년 연수원에는 49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47명이 수련회 참가 중에



서울 소망유치원생 42명
안양 예그린유치원생 65명
서울 공릉미술학원생 132명
부천 열린유치원생 99명
화성 마도초등학교 학생 42명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알 수 없는 이유로 강동구 소망유치원생
19명이 자고 있던 301호에서 화재가 발
생하고 19명의 어린이와 4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 로 만든
컨테이너 박스 건물 전체로 확산됩니다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수련원 건물은 콘크리트 1층 건물 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 객실을 만든 임시건물로 안전사고위험 때문에 '어린이 캠프'가 금지된 건물이었습니다



양어장-수영장-수련원으로 전환하여
운영상태와 인허가 기준이 맞지 않음에도
화성군은 사용승인과 운영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두세 달 전에 소방점검을 했지만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와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고



비치된 15개 소화기 가운데 9개는
속이 텅 빈 '먹통 소화기' 였음에도
소방서는 소방 필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이 계장도 허가를 내준 책임이 있지만 끝까지
버틴 정상을 참작하여 무죄 처분을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불이 나기 전의 기록 - 이장덕 계장의 비망록

▲97.12.19 = 씨랜드 인.허가건으로 하여
대리인인 박재천씨가 험상궂은
3명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 왔다.

사회계 차석 박00씨(회계담당)가 강과장이 ‘
오늘이 월급날인데 노골적으로 돈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하면서 천상 부녀 복지계에서
10만원하고 해서 50만원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고 했다.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과장 용돈이나 대주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었다. 안 주었다간 박주사가
고통스러울 것 같아 주긴 주었지만 저런 태도의
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했다

▲97.12.22 = 박재천이 사무실로 또 찾아왔다.
박재천은 언젠가 강과장과 함께 벌을 받아
야 마땅한 사람이다.

▲98.1.3 = 강과장이 씨랜드 인.허가건을
오늘 퇴근을 못하더라도 끝내라고 지시했다.

▲98.1.30 = 과장이 불러서 가보니 배 상자안에
박재천이 전달하라고 했으며 50만원이 든 봉
투를 건네주었다.

싫다고 했더니 받아서 직접 돌려주라고 했
다. 박재천의 농협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곧
바로 송금하였다. 내가 굶어죽어도 그런 돈
을 받고 싶지 않다.

이장덕 계장의 비망록

▲**98.8.20**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전 사전영업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와 결재를 올렸더니
강과장이 사인을 해주지 않았다.....

7월15일 현지 출장하여 영업행위를 중지하라고 하였음에도

7월22일 또 영업을 하고 있었다. 씨랜드 건에
대해 과장이 이상하게도 과민반응을 보인다
.....

우린 이 건으로 인해 그 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차라리 과장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도 해본다.

98.2월 상사의 압력과 용역강패의 협박에
못이겨 이장덕 계장은 씨랜드 운영허가를
내주고,

“당신이 군수야 뭐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강00 사회복지과장)

“가족을 몰살시켜버리겠다”
(용역강패의 협박에 3자녀를 한때 파신)

그리고.....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천만다행으로 검은 재에 그을리면서도
살아남은 아이도 있지만 19명의 어린이와
4명의 교사가 아까운 목숨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주인을 기다리는
소망유치원의 19결레의 신발들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을 잃고



대통령 내외도 추모했지만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의 마음은 모두의 영원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화재에서 아들 도현(강동구 소망유치원)을 잃은 전국가대표 하키선수 김순덕씨는
우리나라에 절망하여 메달과 훈장을 반납하고 1999년 12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녀는 떠나면서 ‘누구나 그 속에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III

Judgment

도 덕 적 판 단 력



I. 부패개념의 변화

II. 흔히 오해하는 부패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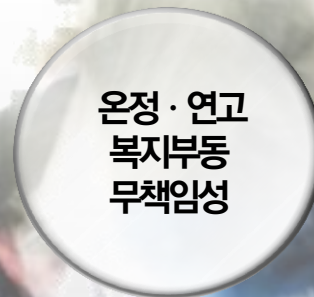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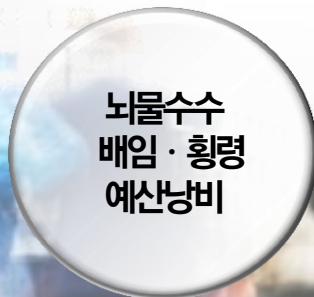
부패 개념의 변화

부패 개념의 확대



[전통적 부패]

Global Standard
국민기대 상승



[오늘날의 부패]

부패 개념의 변화

부패 개념의 확대

공직자 비리 무관용 (Zero Tolerance) 사례 1



공짜표 5장에 벌금 7,000만원?

데이비드 피터슨 뉴욕 주지사의 사례
월드 시리즈 개막식 입장권을 무료로 받음

입장권 가격의 30배에 해당하는 벌금 납부

부패 개념의 변화

부패 개념의 확대

공직자 비리 무관용 (Zero Tolerance) 사례 2



이 정도면 봐줄만 하지 않나?

- 한 핀란드 경찰의 사례
- 자전거를 찾아준 데 대한 감사 표시로 받은 음료수 값 2유로가 문제가 됨

음료 가격의 약 250배에 달하는 벌금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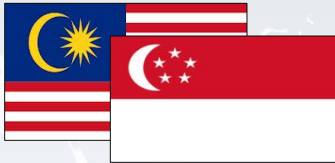
부패 개념의 변화

선물 및 접대 기준에 대한 국가별 비교



네덜란드

- ❖ 선물, 또는 금품 수수 금지
- ❖ 소관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선물을 받을 수 있으나 50유로 이상은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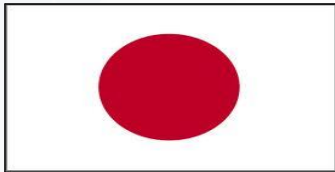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 원칙적으로 선물 수수를 금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에게 보고
- ❖ 싱가포르의 경우 수수한 선물을 보유코자 할 경우 그에 준한 가액



영국

- ❖ 다이러리, 팬 등 소액의 선물을 제외하고 금지
- ❖ 항공 마일리지 사적 보유 가능



일본

- ❖ 홍보 용품이나 기념품, 공무 출장 시 당해 기관의 물품 및 차량 편의, 공식 모임에서 제공되는 다과 및 식사 등을 제외하고 금지



미국

- ❖ 20불 이하의 선물, 사적 관계에 따른 선물, 할인 및 유사혜택, 포상과 명예 학위, 외적 비즈니스 고용관계에 따른 선물, 대통령/부통령에 대한 선물, 추가 규정 및 특별 규정에 의해 허용된 선물은 예외

흔히 오해하는 부패 사례

거래 업체로부터 명절 인사로 **3만원 이하의 떡 등 선물**을 받는 것은 괜찮다?

- **공무원행동강령에 저촉됨.**
-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액 여부에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음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1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이하 “금품 등” 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안됨



흔히 오해하는 부패 사례

알선·청탁 사항이 **실현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

Q. 기관장이 청사실 보수 업무 담당 국장에게
고향 후배 청탁. 그러나 고향후배가 동 사업을
맡게 될지 여부는 미정

A. **행동 강령에 저촉됨**

<공무원행동강령 제 11조 위반 >
기관장이 담당 국장을 불러 개별 브리핑을 시키고
일을 맡겨 보라고 한 것은 담당국장의 공정한 직
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 청탁



흔히 오해하는 부패 사례

친구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동료 직원에게 부탁하는 것은 괜찮다?

Q. 경찰이 무면허 조사를 받는 친구를 위해 동료 직원에게 선처를 청탁하고 대가를 주지 않은 경우

A. **대가를 수수하지 않았어도 유죄**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 위반>

행동강령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 청탁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



흔히 오해하는 부패 사례

친구의 사업장 개업식에 기관명칭 · 직위를 기재한 축하 화환을 보내도 괜찮다?

Q. 후배의 개인 변호사 개업식에 보내는 축하 화분.
소속 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적어 보내는 경우

A. 사적 이익을 위한 직위 공표 · 게시는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제 10조 위반 >
후배의 개인 변호사 개업 축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게시해서는 안
됨



IV *Charac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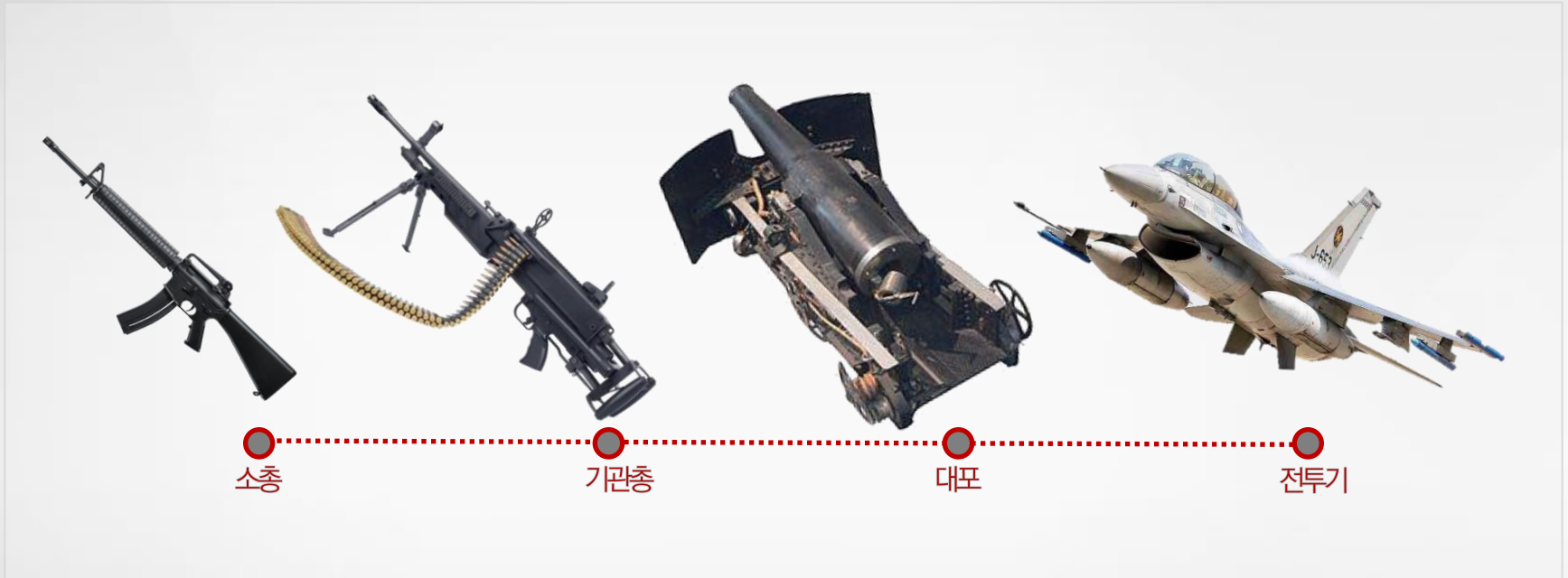
청 렬 수 행 력



- I. 청렴한 조직 만들기
- II. 감옥에서 온 편지

청렴한 조직 만들기

1. 누구나 안전수칙(행동강령)을 준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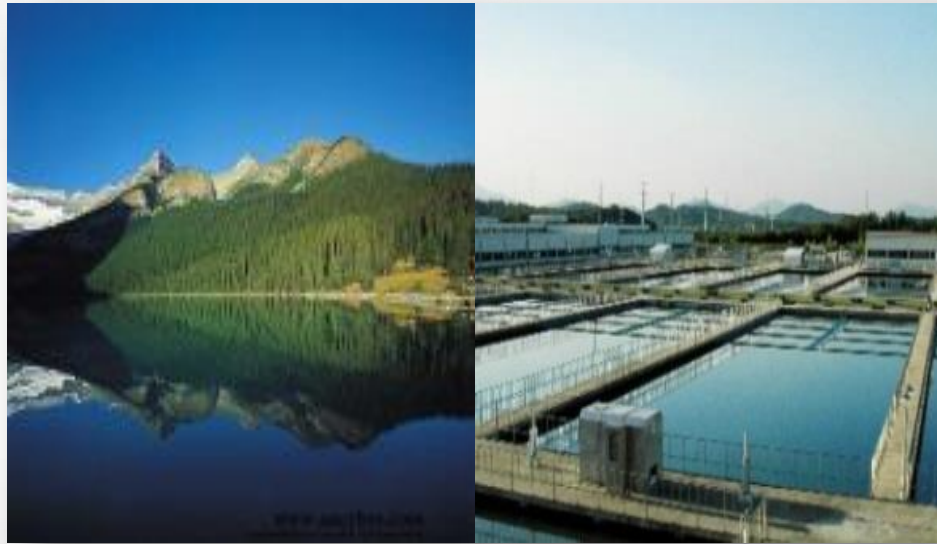
권한이 커질 수록 강한 안전수칙이 필요

2. 아무리 작은 깨진 유리창도 방치하지 말라



깨진 유리창의 법칙

3. 처음부터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부패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정부에 들어오게 한 다음 그들을 감시하는 것이 더 쉬운가,
아니면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만 들어오게 하여
정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더 쉬운가?’

청렴한 조직 만들기

4. 아랫물도 윗물을 맑게 할 수 있다

1 내편을 만들어라

평소 주변 동료, 상사와의 신뢰 쌓아두기

2 진심으로 조언하라

부패로 상대방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조언

3 3명이 함께 움직여라

3명이 함께 움직이면 상황을 바꿀 수 있음



청렴한 조직 만들기 4단계

1 기관장의 청렴 의지의 조직 내 전파

2 청렴성의 제도화

3 적절한 윤리 강령

4 내부이익제기의 보장



감옥에서 온 편지 1

능력도 있고

조직에 공헌도 많이 한 나를

10년째 같은 직급에 머물게 했다.

직급이 나보다 1-2단계 낮은 부하

직원들이 동료나 상사로 변해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공직을 박탈당하고 갇혀 있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때 내가 공직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도 큰
혜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 때 불만을 가질게 아니라 소히려
감사하며 살아야 했었다.

그리고 감방 동료들을 보면서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단지 순이
없어 나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진작에 내가 못 가진 것보다 가진 것
을 볼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다.

감옥에서 온 편지 2

매일 16시간을 힘들게 일하고도
매 월 보잘 것 없는 월급을 받았다.
그러나 나에게 아침하고 비위를
맞추는 민간기업 사장들이 비싼
술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돈
방석 위에 올라 앉은 것처럼 부유
하니 정말 불공평했다.

부패 공직자라는 낙인을 달고 사회
에 나와 돈을 벌려도 해보니 예전의
공무원으로서 고생한 것은 고생 축
에도 끼질 않았다.

사업하는 사람 중에는 물론 나쁜 짓
을 하여 잘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잘사는 사람들은 능력
이 뛰어나던지 노력을 남보다 많이
하던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다.

공무원 시절 나만 고생하고 잘사는
업체 사장들은 모두 부정을 저질러서
돈을 모은 것이라는 나의 생각은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것이었
던가?

감옥에서 온 편지 3

모두 부패하는데 나 혼자 청렴
하기는 어려웠다.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는 모두 뒷돈을 챙긴다.
나도 대세를 따랐을 뿐이다.
뇌물을 주는 방법이 너무도 교묘
하여 거절하기 어려웠다.

나쁜 짓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좋은 것
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나쁜 짓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도 나쁜 짓이다.

내 눈에 뇌물 받는 사람이 유독 많이
보였던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
것일 뿐 실제로 많은 깨끗한 동료들을
나는 인식하지 못했다.

이미 내 마음은 부패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